

동서대학교 글로벌항만물류 연구회

해운 이슈를 알아보자!

오늘의 이슈

| 부산항만공사, 디지털 트윈과 5G 기술 |
접목한 **스마트 항만물류 플랫폼** 고도화 착수

국제물류학과
천호준, 한현경, 이동호, 김다연

사업협약 체결

부산항만공사 사장 '강준석'은 [부산항 디지털 트윈 항만물류 플랫폼]의 고도화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사업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사업은 부산항만공사 컨소시엄이 국가 주요 인프라를 대상으로 ICT 신기술의 시범실증을 지원하는 **[국가 인프라 지능정보화 사업]**을 통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항만, 배후물류의 생산성&효율성 증대

해당 플랫폼을 세계 최초로 선박, 항만, 배후물류를 통합
연계한 사례로 실시간으로 물류현장과 데이터를 시각적
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양한 알고리즘을 통해 항만과
배후물류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선박 입출항 최적화 기능

BPA가 이 플랫폼의 연계 데이터 수집, 현장 모니터링, 시뮬레이션 등 핵심기능을 테스트하고 검증한 결과 항만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다양한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선박 입출항 최적화 기능을 활용하면 선박 대기시간이 35%, 연료 소모량 27%이 각각 감소, 항만 장비 최적 배치 알고리즘을 통한 장비 효율을 16% 향상시켰습니다.

스마트 항만물류 플랫폼

BPA는 올해 디지털 트윈 모델링을 더욱 정교하게 고도화하고, 선박 위치정보 수집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 밝혔고 터미널 운영 시스템과 연계한 항만 운영 시뮬레이션 기능을 강화하여 외부 화물차량 대기시간 최소화 지원 기능을 개발, 도입해 활용성과 효과성을 제고시킬 것입니다.

● BPA의 노력

01. [디지털 트윈 스마트 항만물류 플랫폼]
부산항 전체로 확대 & 구현

02. 부산항의 생산성, 효율성, 안전성 강화

03. 해양수산부와 긴밀한 협력 유지 및 추진

해운 이슈를 알아보았습니다!

재밋고 유익한 해운 이슈 놓치지 마세요!

동서대학교 글로벌 항만물류 연구회

